

오만 잡고 런던 티켓 잡는다

홍명보호 사우디와 무승부...22일 올림픽행 확정 결의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의 7회 연속 본선 진출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현지시간) 런던올림픽 아시아 지역 3차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4차전인 사우디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비긴 경기였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보경(세레소 오사카)의 동점골이 없었다면 런던 올림픽 본선 직권 티켓이 저만치 멀리 날아갈 뻔했다.

공교롭게도 '홍명보호'는 출범 이후 중동 원정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요르단과의 2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긴 홍명보호는 지난해 11월 3차 예선 카타르 원정에서도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태국 킹스컵 출전, 카타르 도하 전지훈련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자신했지만 이번 사우디 원정에서도 지옥 문턱까지 경험한 끝에 1-1로 힘겹게 비겼다.

중동 원정으로 치른 세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끝낸 한국은 오는 22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2승1무1패로 승점 7을 확보한 오만은 1점 차로 한국(2승2무·8점)을 바짝 뒤쫓고 있다.

따라서 오만과의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하던 한국은 조 2위로 밀려나 3월 카타르와의 홈 경기를 이기고 나서 오만-사우디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오만전에서 비기면 조별리그 최종전인 3월 카타르와의 홈 경기에서 이길 경우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카타르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만-사우디 경기 결과에 따라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은 있다.

런던올림픽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은 각 조 1위를 차지한 3개 나라가 본선에 직행하고, 조 2위 세 나라가 3월 말 베트남에 모여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 플레이오프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4월 영국 코벤티리의 코벤티리 스타디움에서 아프리카 예선 4위 세네갈과 단판 승부로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겨룬다.

물론 한국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만을 원정 경기에서 물리치고 조 1위를 확정 짓는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중동 원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완해야 할 것은 없다. 아직 오만전까지 시간이 있다"고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중동 원정에서 모두 실점을 하고 힘들게 따라가다 보니 승리를 얻지 못했다"며 상대팀에 선취점을 허용하지 않는 전략을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감독은 "22일 오만전은 가장 중요한 경기다. 남은 기간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5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의 프린스 모하메드 빈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 4차전 대한민국 대 사우디 경기. 김보경(오른쪽)이 후반전 종료 직전 동점골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맨유 선수로 200경기 출전

입단 6년7개월만에 팀내 92번째 대기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인 박지성(31)이 맨유 유니폼을 입고 200차례 출전 기록을 세웠다.

박지성은 5일(현지시간) 영국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2011-2012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3-3으로 맞선 후반 39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로써 맨유 입단 6년7개월 만에 2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한 맨유 같은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에서 출전 기회를 꾸준히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맨유가 1878년 창당한 이후 134년 동안 개인통산 200경기 이상을 뛴 선수는 박지성을 포함해 92명뿐이다.

100경기 이상을 뛴 선수도 200여 명에 불과하다.

맨유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성이 대기록을 세웠다"며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박지성은 "믿기지 않는다"며 "맨유에서



치 않는 신뢰를 얻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한 것은 2005년 7월이었다.

과거 세 감독이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뛰는 박지성을 최소한 20차례 이상 직접 지켜보고서 이적료 400만 파운드(추정·당시 약 73억원)를 내고 데려갔다.

박지성은 2005년 12월 버밍엄과의 리그컵(칼링컵)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듬해 2월에는 같은 대회에서 맨유 입단 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박지성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등 4차례나 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맞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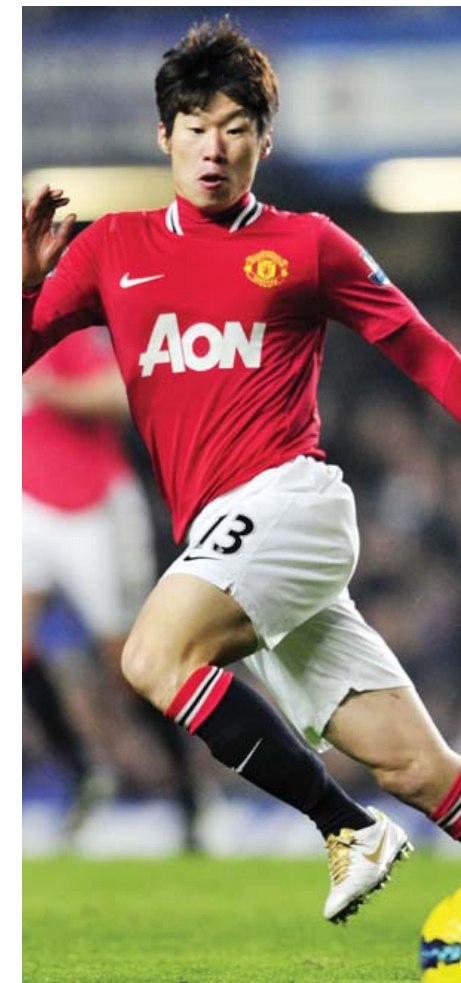
박지성은 특히 2008년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을 펼쳤다.

비록 첼시와의 결승전 때 교체 출전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AS로마와의 8강전, 바르셀로나와의 4강전에서 맹활약해 우승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이듬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으나 우승컵은 아쉽게도 바르셀로나가 가져갔다.

박지성은 2009년 9월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재계약해 진가를 입증했다.

그 후 무릎을 다쳐 2009-2010시즌 초반에 벤치 신세를 졌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



맨유 박지성이 6일(한국시간) EPL 첼시와의 경기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드필더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박지성은 작년 8월 맨유와 2012-2013시즌이 끝날 때까지 뛰기로 계약을 다시 함으로써 맨유에 꼭 필요한 베테랑임을 보여줬다.

퓨처스리그 4월 10일 팡파르

고양 원더스·日 소프트뱅크 3군 번외 참가

프로야구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가 올해 1군 개막일(4월 7일)보다 사흘 늦은 오는 4월 10일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북부리그(상무·경찰야구단·LG·SK·두산)와 남부리그(삼성·한화·롯데·넥센·KIA·NC) 소속 11개 팀과 첫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3군 등 총 13개 팀이 참가하는 퓨처스리그 일정을 6일 발표했다.

각 팀은 8월 30일까지 같은 리그에 속한 팀과 팀당 14차전, 다른 리그의 팀과는 6차전을 치른다.

전체 경기 수는 530경기(북부리그 230경기·남부리그 300경기)다.

올해에는 세 팀이나 가세해 1군 리그 못지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군 진입을 목표로 세운 제9구단 NC 다이노스가 남부리그에

편성돼 기존 팀과 기량을 겨룬다.

김성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고양 원더스와 일본 소프트뱅크 3군도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할 참이다. 고양 원더스는 북부리그 팀과 6차전씩 18경기, 남부리그 팀과 3차전씩 30경기, 총 48경기에서 맞붙는다.

일본에서 경기 일정과 구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소프트뱅크 3군은 한국으로 넘어와 북부리그 3개 팀(LG·두산·SK)과 2차전씩 6경기, 남부리그 6개 팀과 2차전씩 12경기 등 총 18경기를 벌인다.

두 팀은 번외 경기 형식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기록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고 우천으로 취소되면 더블헤더를 실시하지 않고 예비일에 우선 편성한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7월 1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KIA 연습경기 일정 확정

KIA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KIA는 6, 8일 미국 애리조나 야구장에서 자체 청백전을 갖고 9, 11, 13일에는 넥센과 연습경기를 펼친다. 그 다음날 14일에는 두산과 연습경기를 통해 전력 점검에 나선다. 18일 일본 오키나와로 캠프를 이동하는 KIA는 22일 일본 주니치(차투구장), 23일 요코하마(기노와구장), 24일 SK(구시와구장)와 연습경기를 실시한다.

하루 휴식을 취한 뒤 KIA는 26

일 주니치 2군(요미우리구장), 27일 야쿠르트(우라조에구장), 28일 주니치(차투구장) 등 일본팀들과 경기를 갖는다.

3월 들어서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 국내 구단과의 연습경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일 LG(이시와구장)전을 시작으로 2, 5일 한화(차투구장), 7일 삼성(아카마구장), 8일 LG(이시와구장), 9일 한화(차투구장)와의 경기를 갖고 13일 귀국한다.

하루 휴식을 취한 뒤 KIA는 26

/임재만기자 kjdaily@kjdaily.com

미식축구 뉴욕 자이언츠 슈퍼볼 우승 '터치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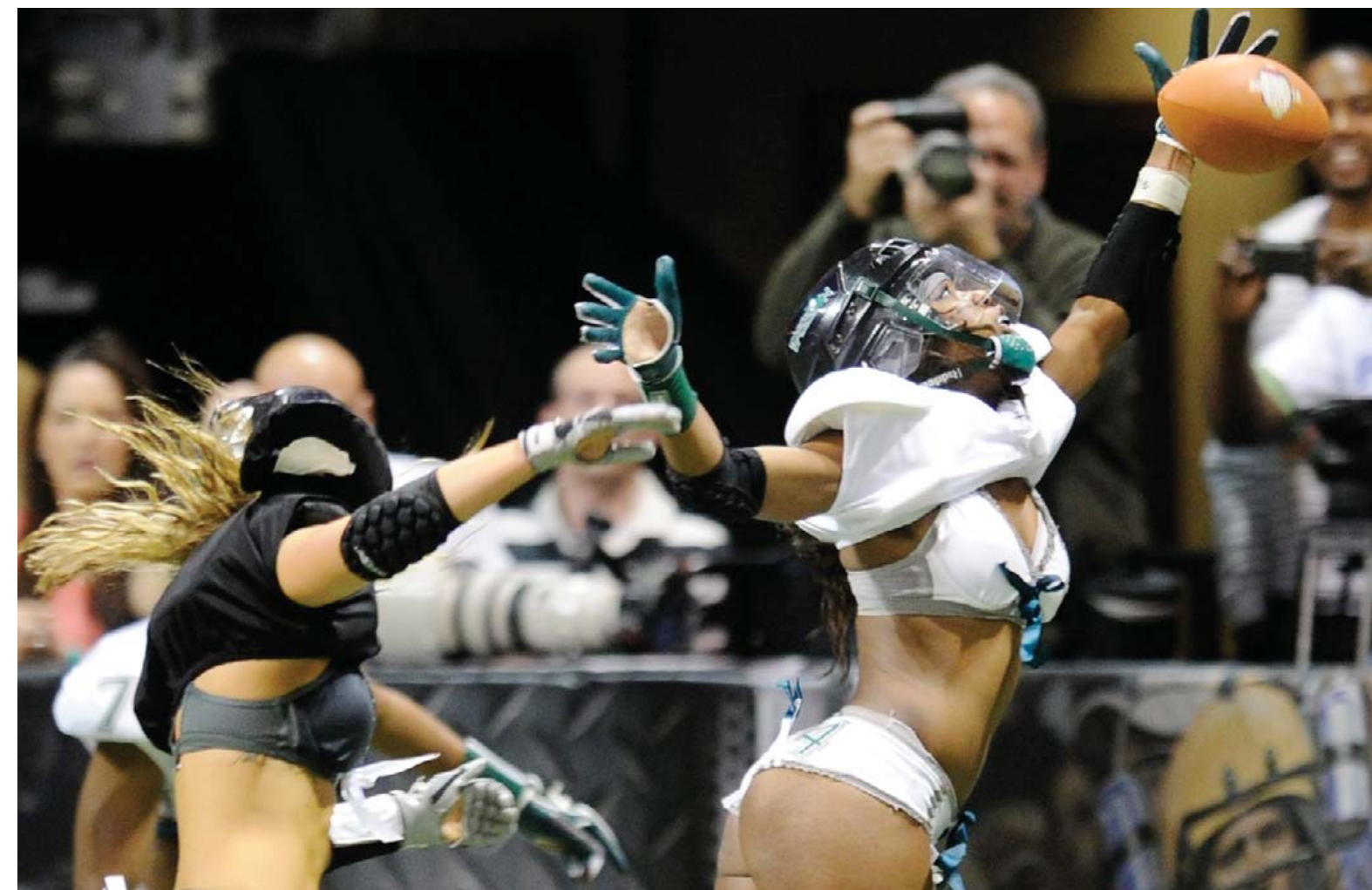
뉴욕 자이언츠가 NFL(미국프로풋볼) 최종전 '제46회 슈퍼볼'에서 4년 만에 다시 만난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에 막판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뉴욕은 5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의 루카스오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6회 슈퍼볼에서 종료 57초 전 터진 아흐메드 브래드쇼의 터치 다운에 힘입어 뉴잉글랜드를 21-17로 꺾었다.

지난 2008년 42회 대회에서 뉴잉글랜드에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던 뉴욕은 이번 46회 대회에서도 같은 상대에게 또다시 막판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슈퍼볼 우승자에 주어지는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정규 시즌에서 9승7패의 기록으로 '어렵게' 슈퍼볼 무대에 올라온 뉴욕 자이언츠는 13승3패로 무난하게 슈퍼볼 무대를 밟은 뉴잉글랜드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아필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린 라례리 풋볼리그에서 필라델피아 엘리스 맥클래리가 로스앤젤레스 수비수에 막혀 공격에 실패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로스앤젤레스가 28-6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